내 안에 거하라

<요 15:4-5>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딘가에 속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동양의 작지만 큰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름의 뼈대를 자랑하는 문화 류가 37대손이고, 우유부단한 핫바지 양반들의 고을 충청도 출신이고, 신사 해군을 꿈꾸며 해군장교로 입대했지만 배경이 시원치 않은 이유로 전혀 신사적이지 않은 해병대에서 1년을 근무해야 했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 그룹에 속해서, 그것도 골수분자 중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좀 고상한 용어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안정되게 구축하고 든든한 소속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살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곳에만 소속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은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딘가로 들어가고 또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형성되어 갑니다. 따라서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거할 것이며, 또한 어디로부터 과감히 빠져 나올 것인지를 지혜롭게 결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 누구도 저급하고 찌질한 집단에 속해서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나를 좀더 그럴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을 다들 원합니다. 그냥 그 안에만 있어도 절반의 성공은 보장받을 수 있는 배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소위 명문대학에 가려는 것이고, 권력과 돈을 손에 쥠으로 사회 기득권에 속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소위 고상한 집단이고, 어떤 것이 저급한 집단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사회에서 가장 찌질한 집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 특별히 정치인들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이상해진다고들 합니다.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어서 사람들에게 교회는 한국사회의 기득권 중 하나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교회만큼 소속되기 싫은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교회는 인기를 상실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말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는 연예인들 중 상당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저 중 얼마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일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올 연말에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 가운데 옥석이 가려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소위 고상한 집단의 대표는 아마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 칠한 무덤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 부를 얻었다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회에서 가장 저급하다 평가 받던 사람들, 즉 세리, 창녀, 죄인들 속에 예수님이 친구로 계셨고, 따라서 그 자리는 더 이상 저급한 자리일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소위 고상한 집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 3:4-6).

바울이 든든히 뿌리박고 있던 이 우월한 정체성은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열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당시의 기득권에 든든하게 몸을 세우고 있던 사도 바울을 그 안정된 자리에서 꺼꾸러뜨린 것은 바로 그가 박해하던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새롭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예수에 대한 그의 인식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 3:7-9).

이제 바울은 예수 안에 있기 위해 그가 이전에 속해 있었던 다른 것들로부터 빠져 나옵니다. 예전에 그의 정체성을 구성했던 것들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유익들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이제 그에게 가장 ‘고상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그의 많은 서신들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때, 이는 그리스도 안에 더 ‘온전히’ 거하라는 권면으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그분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초청에 응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즉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처럼 어느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늘 붙어 있으면서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 예수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 3:20). 마침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빌 1:6).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통해,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부르심, 즉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것이다. 이 각각의 의미를 좀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온전한 앎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4:6). 즉,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보다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이 온전한 앎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1-32).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이것이 명확히 보이지 않기에 실제로 중요치 않은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진리를 손에 움켜쥐려 하지 말고, 진리 앞에서 마음을 여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더 깊이 만날 때, 우리는 우리를 얽어 매고 있던 많은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한번이라도 뼈저리게 느껴볼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롬 7:25).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며,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 환난이나 박해, 혹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막 4:15-19). 때로 우리는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존의 문제로 염려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근거하여,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일 4:10-11). 뿌리로부터 올라온 물은 포도나무 줄기를 타고 가지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각 가지에서는 꽃이 피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은 우리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사랑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을 너무 어렵거나, 너무 거창하거나,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국 땅에 있기 때문에 더욱 각박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국 땅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흐름을 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낸 1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수한 사랑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남들의 이사를 자기 일처럼 돕습니다. 어떤 분은 체코어 통역을 당연하게 자기의 몫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것을, 어떤 분은 요리로 섬기는 것을, 어떤 분은 행사 후 뒷정리하는 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이웃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분이 있고,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온 멸치 한 줌, 김 한 팩, 커피믹스 한 묶음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참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지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말 한 마디, 웃음 한번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며, 다른 지체의 어려움이 무얼 지 생각하며 그 짐을 함께 지고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언젠가 떠나갈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헤어짐이 아쉬워서 번번이 공항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 … 이 모든 것이 여기, 체코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안에서 더욱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분명히 볼 수 있고, 또한 담대히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되기보다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예수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의 눈에, 이 예수의 길은 참으로 어리석고 괴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묘하게도 그 길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그 길의 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며, 구원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6).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이 음성은 더욱 더 분명히 들립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예수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삶입니다.

 체코, 일본, 몽골 교우들과 서로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하나되려는 우리 교회의 노력, 체코 교회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열린 교회로 변화시키려는 우리 교회의 선교활동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길을 따르려는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분 자신의 모습으로 빚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좀 더 그럴싸해 보이게 해주는 세상의 것들에 목을 메지 말고,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가까이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4).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당신을 더 온전히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